 기획재정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1. 7. 27.(화) 22:00 (국제엠바고)	배 포일시	2021. 7. 27.(화) 15:3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국제통화팀장 박민주 (044-215-4840)	담당자	이동훈 사무관 (ldh5758@korea.kr) 지윤서 연구원 (cys12@korea.kr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 (044-215-5740)	담당자	강도영 사무관 (ara852456@korea.kr)

‘21.7월 국제통화기금(IMF) 세계경제전망(WEO)* 수정 발표

- 세계경제성장 전망은 6.0% 유지, 한국은 4.3%로 0.7%p 상향 -
- 우리정부 및 주요기관 전망치 중 최고, G7 중 성장을 상향폭 세 번째 -
- 경제성장을 상승 등으로 ‘21년 부채비율도 1.3%p 개선 -

* World Economic Outlook, IMF는 통상 4월·10월 세계경제전망(WEO), 1월·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(WEO Update) 발표

1. 주요 내용

※ 국제통화기금(IMF)은 ‘21.7.27(화) 22:00(워싱턴 D.C 현지시간 7.27(화) 09:00) 세계경제전망(*Fault Lines Widen in the Global Recovery*)을 수정 발표

□ (세계경제전망) ‘21년 성장률 6.0%로 유지(‘22년 4.9%, +0.5%p)

○ 다만, ‘21.4월 전망시보다 국가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는 양상

□ (국가그룹별) 대체로 선진국은 상향, 신흥·개도국은 하향조정

○ (선진국) 백신공급 확대,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‘21년 5.6%로 0.5%p 상향조정(‘22년 4.4%, +0.8%p)

* 주요국 ‘21년 성장률(%) : (美)7.0(+0.6%p) (유로)4.6(+0.2%p) (英)7.0(+1.7%p) (日)2.8(△0.5%p)

- (한국) ‘21년 4.3%로 0.7%p 상향(‘22년 3.4%, +0.6%p)

○ (신흥국) 인도의 코로나 확산과 중국의 긴축재정 등을 반영하여 ‘21년 6.3%로 △0.4%p 하향조정(‘22년 5.2%, +0.2%p)

* 주요국 ‘21년 성장률(%) : (印) 9.5(△3.0%p), (中) 8.1(△0.3%p)

□ (위험요인) 백신공급 지연,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,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의 하방위험 상존

- 국제 백신공급 협력 등에 따른 코로나 조기 종식과 소비 · 기업투자 등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로 상방위험이 혼재

□ (정책권고)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 완화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 유지 권고

- (국제공조) 저소득국 백신공급 확대, 특별인출권(SDR) 일반배분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취약국가 유동성 지원 강화
- (재정정책) 지출 우선순위를 백신, 인프라, 보건 등에 두고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시 재정준칙 등 건전성 관리 노력 필요
- (통화정책)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긴축을 지양하되, 기대치를 넘는 회복시 빠른 정책전환 및 시장 소통 강화
- (금융리스크) 좀비기업 급증에 대비하여 기업감독, 파산 · 회생 지원 등 강화, 외채 만기연장 등 대외 건전성 확보 당부
- (미래대비) 마지막으로 국제 탄소가격 부과, 녹색분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

□ (재정전망 및 금융안정) 글로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, 금융 시장 여건은 안정세 유지

※ 재정모니터(Fiscal Monitor), 금융안정보고서(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)는 통상 업데이트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금번은 부록에 첨부

- 선진국 재정수지는 미국 경기부양책 감소로 GDP 대비 $\Delta 9.9\%$ (+0.4%p), 일반정부부채는 GDP 대비 122.5%로 동일
 - (한국) 재정수지는 $\Delta 29\%$ 로 유지, 정부부채는 51.8%로 하향($\Delta 1.3\%$ p)
- 주택가격 상승, 낮은 자산시장 변동성 등에 대응하여 급격히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

2. 평 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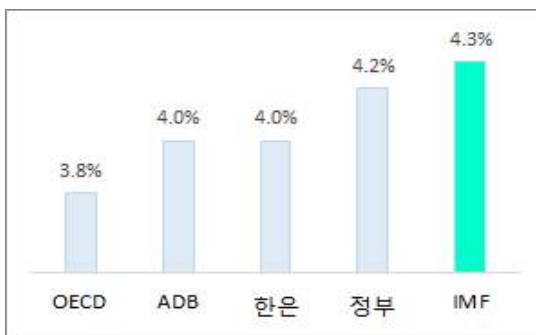
□ 국가간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크게 상향조정 한 것은 매우 큰 의미

- ❶ IMF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 전망치(4.2%)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,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*

* '21년 한국성장률(%) : (OECD) 3.8(5.31) (ADB) 4.0(7.21) (한은) 4.0(5.27) (정부) 4.2(6.28) (IMF) 4.3

- ❷ 올해 성장률 조정폭 0.7%p는 선진국 평균(+0.5%p) 보다 높고, G7 국가 중 영국(1.7%p), 캐나다(1.3%p)에 이어 세 번째로 큼

주요 국제기구 등의 '21년 우리성장률 전망



'21년 성장률 조정폭 비교



- ❸ 금번 보고서에 포함된 30개국 중 '21년, '22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7개(선진국은 4개)에 불과

* <'21년/'22년 성장률 조정폭>

(선진국, %p) 미국(0.6/1.4), 한국(0.7/0.6), 이탈리아(0.7/0.6), 호주(0.8/0.2)

(개도국, %p) 멕시코(1.3/1.2), 폴란드(1.1/0.7), 남아공(0.9/0.2)

(아시아, %p) 중국(△0.3/0.1), 일본(△0.5/0.5), 인도(△3.0/1.6)

- ❹ 코로나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영향을 제거한, '20~'21년 평균 성장률(1.7%)도 선진국 그룹(0.5%)을 큰 폭 상회

- 주요 선진국 중 미국(1.8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

* '20~'21년 평균성장률(%) : (세계)1.4 (선진국) 0.5 (美) 1.8 (韓) 1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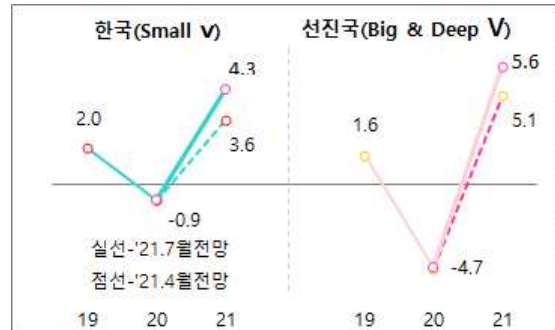
- '20~'22년 3년 평균성장률도 한국(2.3%)이 선진국 그룹(1.8%)을 상회

⇒ 지난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($\Delta 0.9\%$) 한 데 이어, 금년에는
주요 선진국 대비 빠르게 회복할 전망

G7 국가와 '20-21년 평균성장률 비교



한국과 선진국의 성장 모습



□ 한편,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수정된 재정모니터(Fiscal Monitor)에서
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전망도 크게 개선

○ 경제성장률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정부부채비율(D2)은 4월
전망에 비해 $\Delta 1.3\%p$ 하락(53.1 \rightarrow 51.8%)

- 영국,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*이 악화된 데 반해
우리나라는 비교적 크게 개선

* '21년 부채전망 변화(%p, 4월전망대비) : (美)+1.7(132.8 \rightarrow 134.5%) (獨)+2.7(70.3 \rightarrow 73.0%)
(佛)+2.0(115.2 \rightarrow 117.2%) (英) Δ 0.2(107.2 \rightarrow 107.0%) (캐나다) Δ 5.3(116.3 \rightarrow 111.0%)

※ 자세한 내용은 www.imf.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(단위 : %, %p)

경제성장률	2020년	2021년			2022년		
		'21.4월 (A)	'21.7월 (B)	조정폭 (B-A)	'21.4월 (C)	'21.7월 (D)	조정폭 (D-C)
세계	-3.2	6.0	6.0	0.0	4.4	4.9	0.5
선진국 (소비자물가)	-4.6 (0.7)	5.1 (1.6)	5.6 (2.4)	0.5 (0.8)	3.6 (1.7)	4.4 (2.1)	0.8 (0.4)
미국	-3.5	6.4	7.0	0.6	3.5	4.9	1.4
유로존	-6.5	4.4	4.6	0.2	3.8	4.3	0.5
독일	-4.8	3.6	3.6	0.0	3.4	4.1	0.7
프랑스	-8.0	5.8	5.8	0.0	4.2	4.2	0.0
이탈리아	-8.9	4.2	4.9	0.7	3.6	4.2	0.6
스페인	-10.8	6.4	6.2	△0.2	4.7	5.8	1.1
일본	-4.7	3.3	2.8	△0.5	2.5	3.0	0.5
영국	-9.8	5.3	7.0	1.7	5.1	4.8	△0.3
캐나다	-5.3	5.0	6.3	1.3	4.7	4.5	△0.2
기타 선진국	-2.0	4.4	4.9	0.5	3.4	3.6	0.2
한국	-0.9	3.6	4.3	0.7	2.8	3.4	0.6
신흥개도국 (소비자물가)	-2.1 (5.1)	6.7 (4.9)	6.3 (5.4)	△0.4 (0.5)	5.0 (4.4)	5.2 (4.7)	0.2 (0.3)
중국	2.3	8.4	8.1	△0.3	5.6	5.7	0.1
인도	-7.3	12.5	9.5	△3.0	6.9	8.5	1.6
러시아	-3.0	3.8	4.4	0.6	3.8	3.1	△0.7
브라질	-4.1	3.7	5.3	1.6	2.6	1.9	△0.7
멕시코	-8.3	5.0	6.3	1.3	3.0	4.2	1.2
사우디	-4.1	2.9	2.4	△0.5	4.0	4.8	0.8
남아공	-7.0	3.1	4.0	0.9	2.0	2.2	0.2

(단위 : %, %p)

	GDP 대비 재정수지					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				
	'19년	'20년	'21.4월 대비	'21년	'21.4월 대비	'19년	'20년	'21.4월 대비	'21년	'21.4월 대비
세계	△3.7	△10.3	0.5	△8.8	0.5	83.7	98.7	1.4	98.8	△0.1
선진국	△3.0	△10.9	0.8	△9.9	0.4	103.7	122.8	2.7	122.5	0.0
미국	△5.7	△14.7	1.1	△13.3	1.8	108.2	133.6	6.5	134.5	1.7
유로존	△0.6	△7.2	0.4	△7.9	△1.2	84.0	98.0	1.2	100.1	1.9
독일	1.5	△4.5	△0.3	△7.2	△1.8	59.7	69.7	0.8	73.0	2.7
프랑스	△3.1	△9.2	0.7	△9.3	△2.1	97.6	115.1	1.6	117.2	2.0
이탈리아	△1.6	△9.5	0.0	△11.1	△2.3	134.6	155.8	0.2	157.8	0.6
스페인	△2.9	△11.0	0.5	△8.6	0.4	95.5	120.0	2.9	120.1	1.8
일본	△3.1	△10.7	1.9	△9.2	0.2	235.5	254.6	△1.6	256.5	0.0
영국	△2.3	△13.5	0.0	△11.7	0.0	85.2	103.7	0.1	107.0	△0.2
캐나다	0.5	△10.9	△0.2	△7.4	0.4	86.8	117.8	0.0	111.0	△5.3
한국	0.4	△2.2	0.6	△2.9	0.0	42.1	47.9	△0.8	51.8	△1.3
신흥국	△4.7	△9.7	0.1	△7.1	0.5	54.8	64.0	△0.3	65.1	0.0
중국	△6.3	△11.2	0.2	△8.3	1.3	57.1	66.3	△0.5	70.3	0.7
인도	△7.4	△12.8	△0.5	△11.3	△1.3	73.9	89.4	△0.2	90.1	3.5
러시아	1.9	△4.0	0.1	△1.1	△0.3	13.8	19.3	△0.1	18.0	△0.1
브라질	△5.9	△13.4	0.0	△6.3	2.0	87.7	98.9	0.0	91.8	△6.6
멕시코	△2.3	△4.5	0.1	△3.3	0.1	53.3	61.0	0.4	59.9	△0.6
사우디	△4.5	△11.3	△0.2	△3.5	0.3	22.8	32.5	0.1	30.0	△1.0
남아공	△5.3	△12.0	0.2	△9.2	1.3	62.2	77.1	0.0	77.5	△3.3